

利潤의 生産機能과 利害에 關한 考察

文 昌 宇

目 次

- I. 序 論
- II. 利潤의 本質
- III. 利潤의 生産機能
- IV. 自由經濟體制에 있어서의 利潤의 利害
- V. 混合經濟體制에 있어서의 利潤의 利害
- VI. 結 論

I. 序 論

利潤이 없다면 모든 生産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生産은 利潤追求의 結果이기 때문에 前世紀에서는 勿論 지금도 利潤에 對하여 그 見解가 區區하다. 一般的觀念에서 볼때 企業人에 따라서는 自己資本을 투자 하였을때 그 利潤에 自己資本의 利子까지도 포함시켜 利益을 얻었다는 見解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觀念은 特히 後進性的 經濟社會에서 많이 볼수 있는 現象이다. 法人利潤稅 未分配利潤 保留分 때에 따라서 生産費마저 控除하지 않은 것을 一般的으로 利潤이 認定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보편적인 定義에 포함되어 있는 重要的 要素로서의 利潤을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機能과 弊害에 대하여 고찰키로 하겠다.

II. 利潤의 本質

利潤의 機能을 알기 위하여 우선 利潤이 무엇인가를 明確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利潤의 本質을 究明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 아니므로 本稿를 理解 할 수 있을 程度로 極히 간단히 취급하기로 하겠다.

더구나 利潤은 모든 企業에서 發生되는 것이어서 但 生産業에 있어서 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多種 多樣的 企業中에서도 그 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은 生産業이므로 利潤에 대하여 서도 生産業에 對한 利潤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하여 보려고 한다.

生産을 위하여서는 生産要素가 必要하고 그中 土地와 資本은 物的 生産 要素인데 對하여 勞動과 經營은 人的 生産要素이며 特히 現代 社會에 있어서 經營은 勞動 土地 資本을 結合 시키고 利潤을 追求하는데서 그 動力이 되어 生産이 이루어져 있으며 利潤은 이 經營이라는 企業能力的 反對給付로서의 報酬이다.

이와같이 企業家들은 企業을 運營 함에 있어서는 가장 有利한 生産량과 價格은 利潤을 追求하기 위한 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利潤은 生産量 價格에서 生産費를 控除한 殘額이며 즉 生産品의 賣却에서 얻은 收入中에서 各 生産關係者에 대하여 支拂한 後에 企業者의 分으로 남아 있는 殘餘所得이다.

이 企業者들 所得中에는 그들의 出資金에 대한 利子에 相當하는것 以外에도 그들이 土地를 提供 하였을 때는 地代 그가 企業 擔當者로서 企業指導를 하는것 뿐만 아니라 一般 고용노동자가 하는 事務的인 執行勞動에 종사하는 때는 그 賃金에 相當한 보수가 포함 되어있다.

그렇다면 企業者의 總所得中에서 이들의 利子 地代 賃金에 相當한 보수를 控除한 殘餘分中에서 利潤의 本質이 內包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이 利潤은 總利潤과 純利潤으로 區分한다면 純利潤中에서 利潤의 本質이 認定될 것이다. 利潤은 企業主體의 所得이며 그 金額은 未定이다. 이 점에서 다른 生産要素의 보수는 언제든지 프라스를 發生케 하나 企業은 때에 따라서는 利潤 代身에 損失을 發生케 한다.

企業主體는 企業의 所有者이기 때문에 이 損失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企業의 損失을 負擔한다는 것은 財產出資者는 出資金을 상실케 되고 指導勞動의 供給者로서의 出資者라면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結果가 되며 이러한 理由에서 企業主體는 諸各己 企業위험의 부담에 臨하여 있고 利潤은 이러한 위험의 負擔代價로서의 未定報酬이다.

이와같이 利潤은 위험부담代價 입과 同時에 그것은 또 企業指導勞務에 대한 보수이기도 하다. 企業主體로서 財產을 出資한 者는 危險負擔代價 以外에도 利子에 相當한 收得은 出資에 대한 보수이다. 똑같이 企業主體로서 指導勞動을 提供한 者는 企業所有者의 利潤으로서의 위험부담의 보수를 받음과 同時에 勞務提供 그 自體에 對한 보수를 받는다.

財產出資에 對한 利子は 總利潤中에 포함되고 있기는 하지만 純利潤中에는 포함될수 없다. 但 資本의 利子は 資本市場에서의 利子에 준하여서 알 수 있지만 指導勞務에는 市場價格이 없으므로 純利潤 算出時 總利潤에서 控除하는 수 밖에 없으며 指導勞動에 對한 보수는 純利潤中에 포함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性質을 가지고 있는 利潤은 企業主體의 企業指導勞動의 結果에서 나오

는 것이며 그 크기도 指導勞動의 効果에 따라 다르며 利潤의 크기를 求하는 企業은 指導勞動의 活潑한 活動을 要求하기에 이른 것이다. 끝으로 利潤은 企業의 創造 및 革新에 대한 보수이다.

企業은 理想的인 均衡狀態下에서는 陰伏의 報酬는 發表된 利潤을 完全히 없애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새로운 機械의 發明이나 또는 그 改良을 하므로서 生産費를 저렴케 하고 收益增加가 費用增加보다 많은 經濟의性格을 지니는것에 限하여 이때는 創造革新의 既需要曲線이나 費用曲線上의 移行에 依해서가 아니라 曲線自體의 全體의移動으로 利潤이 創出케되며 現狀態를 打破하여 보다 많은 利潤을 얻을려는 데서 國民生産의 純增加를 위한 活動의 代價로서의 報酬이다.

Ⅲ. 利潤의 生産機能

營利經濟는 利潤의 획득 增加를 目的으로 한다. 自由經濟에서는 利潤의 發生, 增加를 期待하거나, 發生增加된 利潤의 現狀을 維持하기 위한 모든 努力이 傾注된다. 이와같은 努力은 利潤追求를 위하여 이뤄지는 한 거기에 利潤의 機能이 認定된다.

營利經濟에 關한 部面은 廣대하며 消費를 除外한 모든 部分의 經濟現象에 이르러 있으며, 財貨의 生産, 供給分量은 勿論 資金의 造出, 供給, 保險 및 所得의 認定 내지 價格決定에 까지 利潤追求의 活動이 認定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利潤의 機能은 但 財貨의 生産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매우 廣범한 部面에 이르기까지 求하여 진다. 그런데 그中에서도 더 重要한 것은 財貨의 生産에 있어서 더욱 큰 것이며 이는 財貨生産이 있음으로써 經濟가 存立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稿에 있어서는 利潤機能中에서도 生産部面에서 보는 機能에 대하여 考察할 것으로 하겠다. 生産은 過去의 營利經濟에서 이루어 지듯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利潤의 획득, 增加를 目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限 生産品의 종류, 生産의 方向과 生産의 數量을 決定하는 것은 結局 利潤에 있어서 左右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서 여기에 利潤의 第一 機能이 認定된다.

그러면 어떤 利潤의 方向을 擇할때에, 또는 얼마 만큼의 量을 生産 함으로써 利潤이 最大에 到達하는가를 決定하는 것은 첫째 生産品에 대한 需要, 둘째 生産要素의 供給事情, 셋째 生産要素의 能率, 넷째 企業의 위험율이며 이와같은 制約 밑에서 利潤은 一國의 生産量과 方向이 決定된다.

企業利潤의 絕對額은 生産品 一個當 利潤의 크기와 生産되는 量에 따라 定해지며 生産品 一個當 利潤의 크기와 또 生産되는 量이 增加되는 比率에 따라 利潤도 增加된다. 生産品 1個當의 利潤은 그價格과 生産費와의 差額이므로 格價이 높고 生産

費가 낮을수록 利潤은 많아지게 된다. 經濟에 있어서는 價格이 높고 生産費가 낮은 商品을 擇하여 生産 할려고 하는데 對하여 自由經濟에 있어서는 生産品價格은 需要와 供給과의 競合에 따라 定해지며 需要가 強한 商品에 있어서는 價格이 높아지는 傾向이 있다.

그러므로 營利經濟에 있어서의 供給, 따라서 生産은 需要가 比較的 強한 商品을 擇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商品의 生産增加됨에 따라서 價格은 下落하고 아무리 需要가 強한 商品에 있어서도 生産增加되는데 있어서만이 商品 1個當 利潤은 低下하게 되며 이利潤은 他商品의 生産에서 얻는 利潤에 比하여 特別히 많지 않을때 生産의 增加傾向은 停止되며 企業者는 그 續行되는 數量만을 生産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生産品 1個當 利潤은 유달리 많지않아 종전에된 生産總數量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企業利潤은 全體로볼때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需要가 比較的 強한 商品의 生産數量은 需要가 비교적 低調한 商品에 比하여 많이 生産하게 되며 生産의 量과 方向도 決定되며 利潤의 機能은 優先 수요의 狀態에 依하여 制約되고 있는 것이라 할수있다. 生産은 生産要素를 結合하여 使用하는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技術的으로 考察하여 明白한 것과 같이 生産要素의 種類와 品質과 量과는 生産의 方向과 量을 決定하는 1個의 制約物이다. 生産要素의 종류에 따라 生産可能의 종류가 決定되고 生産要素의 品質과 量에 따라 生産량이 定해지게 된다. 利潤은 生産品 價格과 生産費의 差額이다. 生産費는 生産要素의 用役, 價格, 土地 勞動 資本 使用에 對하여 支拂되는 地代, 賃金, 利子에 따라 定해진다.

生産要素의 用役價格은 그 需要와 供給數量에 따라서 定해지며 需要가 많거나 供給數量이 적을때 價格은 높게되며 生産數量은 生産要素의 供給數量에 따라 技術的인 制限을 받는다. 이 制限은 同時에 生産要素의 價格과 生産費 따라서 利潤의 決定에 큰 影響을 가져오게 되며 生産要素에 대한 生産業者의 需要는 生産品에 대한 消費者의 수요 卽 有效需要에 反映되는 것이므로 이는 앞에서 말한 利潤의 生産機能制約物의 첫째인 生産品에 대한 需要의 狀態中에 포섭된다.

同種類의 生産要素 일지라도 其 品質優良인 것은 生産品の 量과 生産力의 增大에 따라 比較的 多量의 財貨를 生産할수가 있으며 이는 前記 生産要素의 量과 同一하게 生産費와 利潤을 決定하기 위한 變數로써 生産량을 定하게 될 것이다. 生産要素는 生産用으로 提供되는 反面에 消費用에도 提供이 된다. 後者の 數量이 커짐에 따라 前者의 數量은 적어 지게되며 따라서 生産數量은 적어진다. 生産要素의 用途에 따른 分配率을 決定하는 것은 위 兩 用途에 있어서의 需要의 크기에 달려 있다.

生産要素價格을 決定하는 決定要因인 需要는 生産業者에 있어서의 需要와 消費者에 있어서의 需要를 합친 變數에서 構成되며 消費者에 있어서의 需要가 強하게 되면

生産要素에 대한 總需要는 높게 되며 따라서 生産要素價格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生産者에 있어서는 生産費가 높게 되므로 利潤을 追求하여 있는限 生産品價格은 高價의 位置를 持續하기 위하여 生産의 減縮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生産要素의 總量뿐만 아니라 그것이 生産用과 消費用에 配分되는 率은 또 利潤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있어서의 制約이 되는 것이며 以上 2個 制約을 總括하여 生産要素供給의 狀態로 側面에서 볼 수 있는 利潤機能發揮의 第二의 制約이라고 할 수 있다.

生産要素中에서 資本財는 社會의 生産財에 關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生産要素의 狀態에서나 利潤의 機能制約物의 立場에서나 生産品需要에 對立하고 獨自의 存在를 維持하는 것을 손쉽게 人間의 힘으로 增加 시킬수 없는 土地와 勞動과의 狀態와 同一한 것이라고 하겠다. 生産費는 生産要素의 量과 종류와 品質에 依하여 決定됨과 同時에 그 結合의 狀態 即 組織如何에 따라서 差異를 갖는다. 優越한 組織은 生産要素의 能率을 높이고 生産費를 低下케 하며 生産要素의 結合 그 組織은 生産의 第三의 制約物이다.

利潤이 比等할 경우에는 위험 많은 分野를 회피하는 것을 上策으로 하므로 企業의 위험은 生産의 第四의 制約物이다. 위험의 程度는 앞에서 말한 生産의 諸制約인 需要의 狀態, 生産要素의 供給 및 그 組織의 變動을 쉽게 豫測 可能한가 如何의 點에서 定해진다. 이와같이 生産은 利潤에 따라서 유도되며 生産品에 대한 需要의 狀態, 生産要素의 供給, 組織의 現況, 위험의 程度인 四個의 制約 밑에서 이루어지며 利潤은 이들 制約 밑에서 一國의 生産의 量과 方向을 決定하며 同時에 生産은 消費者의 욕구를 더욱 經濟적으로 充足 시켜주고 있다.

生産의 方向과 量은 앞에서 말한 制約 밑에서 決定된다. 그러나 이 制約은 絕對的으로 變更 不可한 것은 아니며 努力 如何에 따라서 變更 될 수 있으므로 生産은 一次 前述한 諸制約의 現況에 拘縛 되면서도 한편 利潤追求力은 現實의 制約自體의 突破를 企圖한다. 需要의 現狀을 改變시켜 이를 높일려는 措置도 그 中 하나이며 生産品の 광고 선전은 이것의 手段이기도 하다. 또 새로운 市場의 開拓에 努力하는 것도 有效한 手段이며 需要의 現況에 비추어 生産要素供給의 現況개혁의 努力이 이루어진다.

황무지의 개간, 水邊地帶의 매립, 灌溉의 便否, 土質의 改良 등은 土地에 대한 그 數量, 종류, 品質의 現狀을 개선 할려는 것도 人口의 增減 勞動者들의 一般的 技術的 教育普及과 같은 것은 勞動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現況의 개선이며 機械의 發明, 改善, 其他 設備의 改善 등은 資本에 대한 그 制約 自體의 拘縛을 突破 할려는 方法이다.

生産의 第三 制約으로서 生産要素結合의 狀態인 組織도 亦是 그 개선에 努力하고

第四의 制約인 위험에 있어서도 精密廣範한 調査에 資料를 얻어 그 輕減을 企圖하고 있다. 이와같이 利潤追求의 目的은 生産의 制約物의 拘縛에서 부터 現況의 개선에 이르며 이는 利潤機能의 하나이며 또 더욱 注目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生産要素의 量과 品質 組織의 制約은 生産增加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 制約의 現況의 變更 없이는 生産의 增加는 不可能하며 增産과 自立經濟를 必要로 하는 이때 이 利潤의 生産制約 物內容 改革의 機能을 重視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機能의 發揮에 있어서도 스스로 限度가 있으며 利潤의 生産機能을 制約하는 最後의 것은 資源과 文化이다. 生産要素의 量과 質의 制約, 組織의 制約은 努力 如何에 따라 緩和 될 수도 있으나 이 外에도 國內의 資源制限과 國內의 文化의 一般의 水準에 依한 制限은 더욱 더 注目 되어야 할 制約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利潤은 生産品需要 生産要素의 供給과 그 組織 企業危險의 制約現況에 따르면서 한便 또 現況打破의 努力을 喚起하여 一國 生産의 方向과 量을 決定한다. 이 利潤의 機能을 發揮하게 하는 動力이야 말로 利潤이란 所得 生活의 資財의 획득 增加에 있으며 이것은 또 人生의 自愛心에 그 根源을 가져있다. 더구나 多年의 利潤追求의 慣行은 生計를 위한 資財의 獲得增加 目的의 意識 밑에서 이루어 졌고 그 結果 利潤追求心은 目的意識이 없는 듯한 一個 衝動이 더 한층 強力하여 졌고 이와 같이 利潤의 生産機能은 極히 淸찬 動力을 基盤으로 하여 強力히 發揮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利潤은 이 制約을 피하기 위하여 均衡狀態下에서 利潤이 없어질 경우에 企業가는 企業의 創造 및 革新에 依한 새로운 機械의 發明이나 또는 改善을 하므로써 國民生産의 純增加活動을 초래케 하며 그 代價로서의 보수로서 얻게 되므로 이 制約의 現狀態를 打破하여 一國 生産의 方向과 量을 決定하게 된다.

IV. 自由經濟體制에 있어서의 利潤의 利害

利潤은 앞에서 말한 機能을 發揮 하는데 따라 生産은 需要에 適合 되어져 生産要素狀態에서나 消費者의 欲望은 더욱 經濟적으로 充足 시켜 주고 있다. 生産은 可能的한 限 代價로 多量 産出케 되며 이것은 自由經濟에 있어서의 利潤機能의 効益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利潤機能의 發揮은 他面으로 볼때 生産品 需要와 供給과의 豫測을 잘못 하였을때 生産過剩 또는 生産不足이 생겨 때로는 恐慌을 惹起케 한다. 投機는 將來의 經濟事情의 變動을 利用함을 目的으로 하여 이루어 진다. 그 變動은 豫想대로 한다면 經濟界를 安定케 하는 効益을 가져온다. 이와같이 投機에 依한 生産의 增加

減縮은 반드시 弊害만을 隨伴 하는 것은 아니다. 豫測이 不適中時에는 經濟界를 擾亂하며 生産은 需要에 比하여 때로는 너무 많고 때로는 너무 적어 지므로 價格의 激變을 생기게 한다.

企業의 獨占은 可能的 最大의 利潤을 求하기 때문에 生産減縮에 依하여 價格의 上昇을 招來 하고 利潤機能을 獨占과 結付 할때 消費者的 利益에 弊害를 주게 된다. 또 假令 競爭의 自由가 保障 된다, 할지라도 需要가 價格 決定의 要因인 限利潤을 많이 얻으려면 需要가 적은 商品을 피하고 需要가 많은 商品을 生産 할려고 할 것이므로 生産의 方向은 需要의 狀態에 따라 決定된다.

그런데 需要의 高低는 需要者的 所得의 大小에 따라 영향 되며 所得많은 者가 欲求 하는 商品의 需要는 所得이 적은 사람의 欲求되는 商品의 需要보다 強하게 되며 利潤額의 획득은 低所得者의 것 보다 高所得者가 欲求하는 商品 生産에 置重된다는 結果가 생긴다. 所得의 高低는 國家發展上으로 볼때 오히려 低所得者의 欲求 充足을 保護 하지 않으면 안되며 自由經濟下의 利潤은 이러한 점에서 그 弊害가 있다고 본다.

V. 混合經濟體制에 있어서의 利潤의 利害

自由經濟에 있어서의 利潤은 一國의 生産力을 生産品에 對한 需要의 狀態란 制約 밑에서 發揮되며 生産의 方向을 定하는 것도 첫째로 需要의 狀態에 있다. 需要가 強하고 價格이 높은 商品은 比較的 多量이 生産 되며 需要는 貨幣의 購買力 提供者, 即 이것은 그 所得에 根源을 가져 決定하게 된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自由經濟下에서는 生産 過剩으로 인한 經濟不況은 生産의 續行을 不能케 하며 國民生活의 不安定要因을 招來케 한다. 이와같이 生産品에 對한 需要라는 制約下에서 一國의 生産의 方向과 量을 決定하는 利潤의 機能에만 一任하고서는 國民의 要求하는 經濟發展을 이룩 할 수는 없다. 그러나 混合經濟에 있어서는 政策的面에서 이를 能히 調節한다. 또 自由經濟에 있어서는 利潤의 生産機能은 生産費에 따라서 生産要素의 供給이란 制約 밑에서 發揮된다.

生産要素가 적고 生産費가 많은 商品에 있어서는 適當한 利潤을 獲得하기 위하여 生産量을 적게 하므로써 供給을 減縮 시키고 價格을 높이는 方法을 擇하게 된다.

그러나 混合經濟에 있어서는 國土建設 이리든가 水力 및 火力發電의 設備, 水道施設等은 이를 政府에서 담당하여 이루어 지고 企業에서 不可能 한다면가 企業者가 願치 아니 하는 分野를 開拓 함으로써 生産의 基本的 體系를 構築한다.

利潤의 生産機能은 企業危險에 따라 制約된다. 生産은 危險性이 적은 商品生産을

擇하여 이루어진다. 危險性이 많은 生産에 있어서는 利潤의 生産機能은 生産의 制約 現況打破의 方案이 發見케 된다. 그러나 如何한 方面의 生産을 어느 程度의 需要에 質과 量을 充當 시킬수 있는가는 自由이며 이것은 價格과 需要에 따라 自然히 調節되므로 여기서는 利潤機能의 弊害를 가진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여기서의 弊害의 根源은 利潤이 一國의 生産力의 方向과 量을 決定하는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生産의 方向과 量을 決定하는데 左右되는 生産制約 그 自體에 있다. 그러므로 生産의 方向과 增産을 위해서는 適正 價格에 依한 生産動力으로서의 利潤의 強力한 性質을 利用하여 生産의 質과 量의 増大를 期待 할 수가 있다. 利潤生産 機能의 功弊를 論함에 있어서 特히 注視 되어야 할 點은 生産制約物의 現況 打破의 機能에 있으며 이 機能들 中에서도 自由로 發揮 하는 點로 放任 하여도 弊害가 적은 것은 生産要素의 供給및 그 組織의 現況 改善이다.

生産要素供給量의 增加, 質의 改善, 組織의 改善은 生産力 增加, 生産增加의 基本的 要件이므로 利潤은 企業者로 하여금 이 要件의 成就에 努力 하게하며 이 利潤의 機能을 保護하는데서 먼저 生産力 擴充과 生産增加에 더욱 큰 效果를 招來케 하는 措置이다.

VI. 結 論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利潤機能의 發揮는 그 結果에서 弊害도 있거니와 그 功은 매우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國民 經濟 構成 分子로써 主要한 것은 營利 經濟에 있으며 이는 生産 뿐만 아니라 經濟 全 部面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動力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社會에 있어서는 이 利潤이 特定企業人에게 편재됨으로써 오는 社會的 富의 不均衡配分을 政策的으로 억제하기 위해 高所得者에 對해서는 累進稅를 徵收하도록 하고 있는 등 政策이나 制度에 의한 利潤의 配分問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大規模의 業體에 있어서는 企業公開가 政策的으로 促進되어야 할 것이다.